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단식 23일, 단식을 중단하며 ③

현재 나의 정신은 쾌적하고 나의 몸은 가볍다. 생명력(Vitality)의 3대 기본 측정지표인 혈압(80~120)과 맥박(60~70), 체온(36.5, 36.6, 36.7)은 단식 중에도 단식 이후 한 달 가까운 지금까지도 모두 정상이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다.

내가 23일간 단식했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이 당운(黨運)을 걸고 투쟁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간 단식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으며, 2016년 추운 겨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연인원 2천만 명의 23차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570여개 시민사회단체(정치개혁공동행동)도 7개 정당과 연대하여 손잡고 함께 투쟁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하철역 등을 찾아다니며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푸드 트럭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과가 불투명하다. 방향과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갈 길이 멀다. 각자의 처지와 의견과 손익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한강성삼병원에 있을 때, 병실을 찾아온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나는 대화가 새삼 때 오른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이라서 쉽지 않다고 했다. 나는 '동네 통장이나 반장도 그만 두라고 하면 물러나지도 않고 바로 원수가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그 동안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기자 회견장까지 참석해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신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한강성삼병원을 찾아 주신 장병완 원내대표, 유상열 수석최고위원,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정호준 서울시장 위원장, 진화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최경환 최고위원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막당사와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배려해 주신 문정선 대변인, 기자 회견장에 함께 해주신 흥성문 대변인, 박준립 성북갑 위원장, 이재현 서울시장 사무처장, 유희석 종교소통위원장, 병실을 매일 방문해 주신 박준립 성북갑 위원장, 이승한 관악갑 위원장, 안종부 산영도·종구 위원장, 강신복 정책위 부의장, 조용근 노원을 위원장, 김종구 사무부총장, 손동호 당대표 비서실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소통의 광장 바이버방과 페이스북 등에서 댓글로 격려해 주신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페이스북 친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

성장 관리와 뒷바라지에 수고가 많았던 양윤영 기획위원장과 김영동 조직위원장, 이진 조직국장 등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성장과 병실을 찾아준 노원구 당직자들과 친지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네 삶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이다. 바람 불고 티끌 많은 풍진(颶塵) 세상에서 힘들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는 일 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세상사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삶도, 세상도 끝없이 흘러가고 변화한다. 특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무상(無常)하기 그지 없다. 인생 무상, 정치 무상이다.

현대는 불확실성과 변혁의 시대이다. 수많은 장애물과 암초(暗礁)를 뛰어 넘어서 무언가 가치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좌절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앞으로 진진해 나아가야 한다. 실패와 절망과 수모(受侮)에 주저앉으면 슬픔과 회한(悔恨)의 밑 모를 늪에 빠진 뿐이다.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하늘이 준 너무나 큰 축복이다. 몸이 멀리도록 눈물겨운 축복이다. 힘이 있는 한, 끝없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래야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社說

시간강사 대량해고 막아야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강사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재정부담을 핑계로 강사들이 맡는 강의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다. 대학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들이 맡던 과목을 없애거나 정인 교원에게 강의를 맡아주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인원만 동아대 410명, 대구대 200명, 영남대 150명 등이다.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교수 노조는 전국 시간강사 7만6천여 명이 20~30%가 대량 해직의 위기에 있다고 추산한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1년 이상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적용, 병학 중에도 계약한 시간강사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 다.

강사법으로 사립대학이 부담할 추가 비용은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시간강사 한 명당 최대 연간 400만 원꼴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사립대학들이 수십 년 동안 강사들을 할당에 부리다가 재정부담을 핑계로 내쫓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월 말 강제배정이 끝내면 대량 해고가 현실화한다며 그 전에 교육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강사 처우 개선비로 사립대에 217억 원 등 모두 288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만큼 사립대학들도 정부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강좌를 대량 줄인 사립대학은 연말 평가를 통해 혁신지원사업비의 20% 인에서 차등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시간강사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 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화재사망률 저감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최근 보도매체를 통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소 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예방 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지나가던 주민이 경보음 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례,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 조리 중 잡 든 사이 음식물이 가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에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여 신고한 사례, 폭발촌 전기난로에 의한 화재 소 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사례 등이다.

이처럼, 화재 발생사실을 초기에 발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듯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화재는 화재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최근 6년간 전남지역 화재통계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화재에서 약 22%인 반면, 화재사망자 비율은 약 61%가 주택에서 발생하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주택화재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기

초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견전지로 구동돼 별도 전 기배선이 필요 없고 경보음을 통

해 화재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활동에 힘 쓰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구매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소방서에서 운영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를 통해 구매상담, 설치방법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는 가족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기초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설치해서 '안전'이란 뜻깊은 선물이 온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김한다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空 谷 傳 聲 空 谷 傳 聲  
 공 곡 전 성 공 곡 전 성  
 > 뜻: 산골짜기에서 크게 소리치면 그대로 전(傳)함. 즉 악(惡)한 일을 당(當)하게 됨.

<p>湖南新聞</p> <p>대표전화 (062) 224-5800</p> <p>편집국 (062) 222-5547</p> <p>팩스 (062) 222-5548</p> <p>광고국 (062) 222-5544</p>	<p>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라자 5층)</p> <p>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p> <p>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p> <p>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p> <p>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p> <p>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